

# IB (닭전염성 기관지염) 로 의심되는 농장을 가다

— 산란을 떨어지고 회복안돼 도태 —

민 병 호  
(월간양계 기자)

최근 양가농가가 비교적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울근교와 충남지역에 원인모를 질병으로 산란율저하와 폐사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 확대되어 기자는 그 실태를 파악코자 서울부근 몇 농장을 가보았다.

이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피해가 심하게 늘어나고 있었음은 월간양계 2월호(월간양계 통권 196호 p.58참조)에 게재한 바 있다.

## 원인 모르게 산란을 저하로 농장주에게 의심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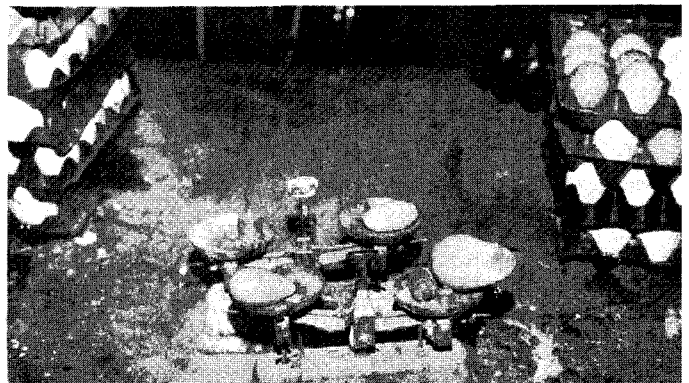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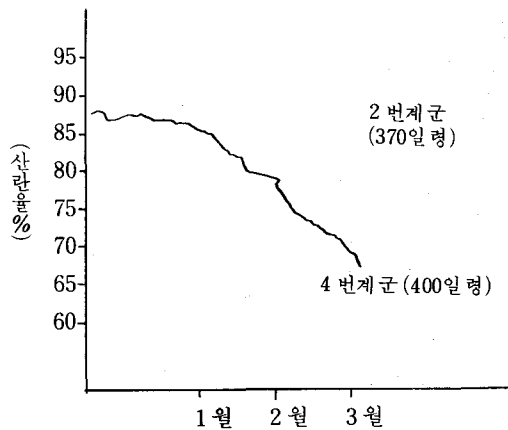
### ○ A농장의 경우

기 사장은 남양주에서 양계업을 10년이상 경영해오고 있으며 채란계 3만수 규모로 백색, 유색 등 5개 계군으로 되어 있다.

잘 정돈된 계사와 주위 계사내의 모든 시설이 보통 양계농가보다는 상위에 있으며 계군별 산란그래프가 있어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을 쉽게 알수 있었다.

그중 400일령인 4번 계군은 산란율 88%에서 지난 2월부터 호흡기증상과 사료섭취율의 감소와 함께 서서히 산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재 68% 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그림 1)

그림 1.



관리인 H 씨의 말에 따르면 방역과 백신을 철저히 해서 그간 별다른 질병없이 잘지내 왔는데 4 번째군만이 산란율이 떨어져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혹시 IB라는 질병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질병도 있냐고 반문하면서 처음 듣는다고 말해 기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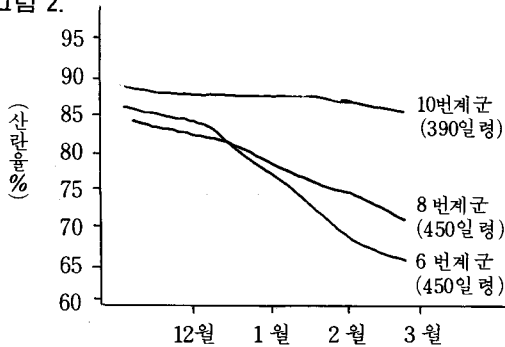
## 질병은 ND·ILT 밖에 몰라 백신은 ND 만 해

### ○B농장의 경우

L 농장은 양계업을 15년째 경영하고 있으며 2만수 규모의 산란계 12계군으로된 농장이다. 계사주위의 환경을 보면 그다지 좋은 환경은 못되는 점으로 보아 질병에는 거의 손을 쓰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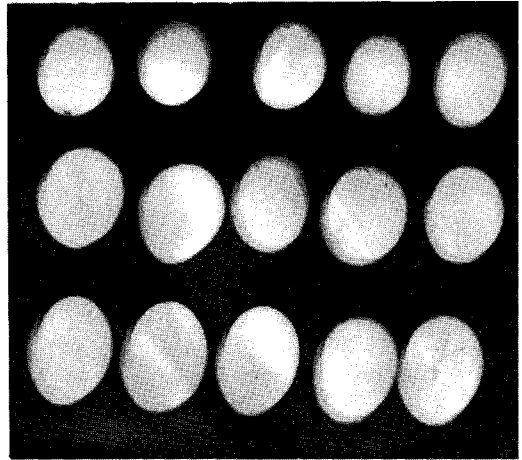
지난 1월부터 6 번째군(450일령)에서 이상란(사진)이 눈에 띄게 많이 보였고 연란도 있었다고 한다. 계군별 산란체크를 해보니 작년 12월부터 6 번째군과 8 번째군에서 산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40%까지 떨어졌다.

그림 2.



관리인 C 씨 말에 따르면 작년 11월 월동준비를 하고 몇일 지나서 6 번째군과 8 번째군에서 서서히 개구호흡을 하면서 환우증상도 있고 기형난과 난각이 많아지면서 파란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역시 A 농장의 관리인처럼 IB라는 질병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고작 백신을 하는 것이 ND(뉴캐)



슬) 뿐이라고 하여 양계업의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듯했다.

## 한달새 1천만원 피해 보아

### ○C농장의 경우

양평에서는 가장규모가 크고 양계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P 사장이 경영하는 채란계 5만수 규모의 C 농장을 찾아갔다.

양평읍에서 남서쪽으로 좁은 비포장도로를 따라 6km쯤 떨어진 농장은 병풍을 두른듯 물 좋고 공기 좋은 송학산아래 계사가 질서있게 잘 정돈된 농장이다.

P 사장은 지역 계우회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역 방위협의위원 청소년 선도위원등 지역유지로서 사회활동도 많이하는 모범 양계인으로 유통, 계산물 소비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양계관련 잡지, 책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부하는 양계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P 사장의 말에 의하면 5 번째군(300일령)에서 지난 2월말부터 연란이 0.2% 정도 나오고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서 황백변이 보이며 산란율이 20~25%씩 4일 간격으로 떨어졌다가(그림3 참조) 다시 8일정도되면서 회복이 되더니 1 번째군(40일령)에서 같은 시기에 지금까지 30%가 떨어지면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한다.

아직까지 8년동안 양계를 하면서 질병이라고는 모르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겁이 나서 수의사, 동물약품 영업부직원에게 물으니 호흡기성 질병이라고 약간 한보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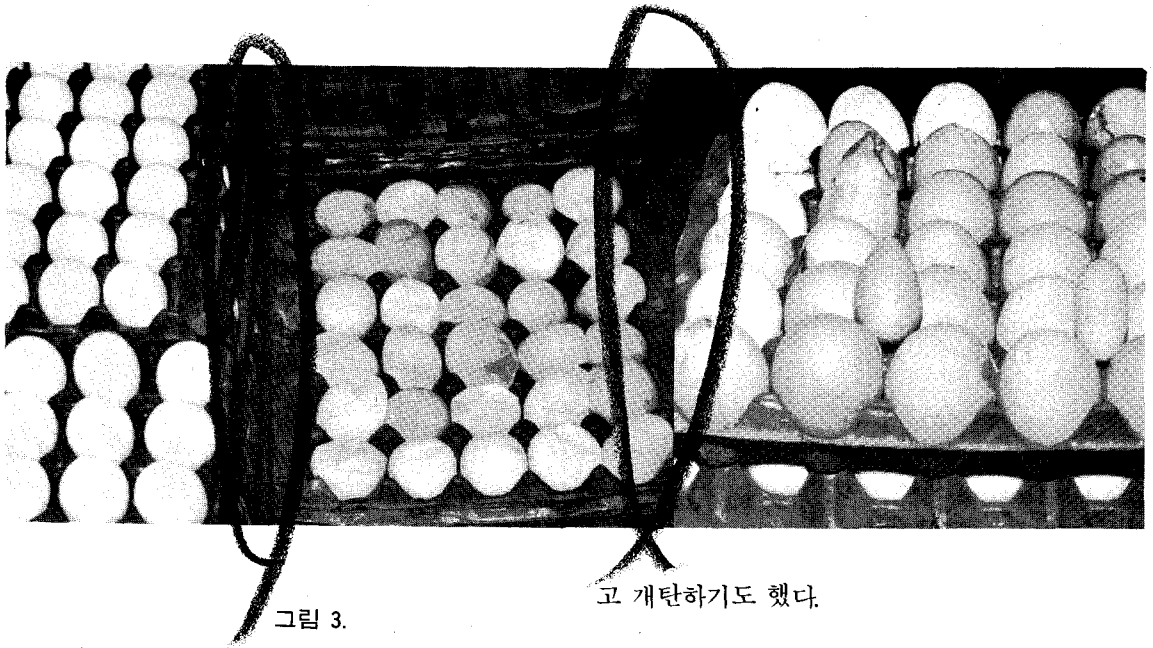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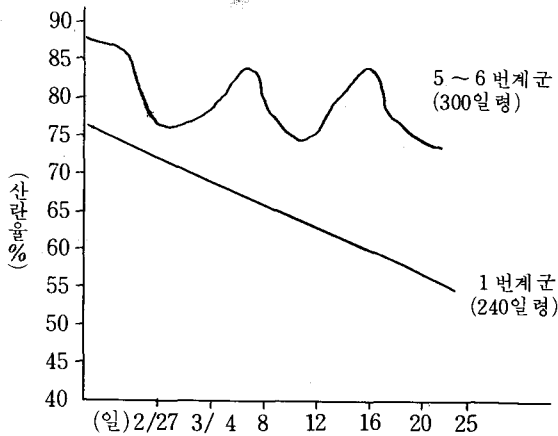


그림 3.

고 개탄하기도 했다.



### 전남지역도 의사 IB 피해 심해

기자는 또 전남지역의 채란계농장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 농장주는 2년전 부터 유사질병의 피해가 있었었다고 전제하고 최근 산란실용계 5000수 계군에서 산란초기에 (25~30주령) 가벼운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산란율이 급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전하는데, 회복하면서 월간 양계지에서 읽어본 바 있는 IB증상과 같은 이상란을 생산했다고 전했다.

산란기록부에 의하면 당시 산란율 92~93%였던 것이 70% 가까이 급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으며 그후 약 2주쯤 지나 (12일~13일) 산란이 회복되면서 이상란(수양성, 우툴두툴한 알, 외소란, 유난히 큰 알, 난각이 으깨진 알)이 나왔는데 산란회복이 전과 같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조기도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현상은 2마수를 기르는 계란케

리 주고 갔다고 실토했다.

지역적으로 보아 오염지역도 아니고 인근 6km까지도 계사가 없어 사료와 난좌를 의심하기도 했는데 모부화장의 C편지에 같은 증상의 질병이 요즘 문제되고 있다고 해 IB로 실증을 굳히게 되

대체적으로 피해를 본 농장에서는 육성계나 대추에서는 잘 못느끼다가 산란중에 알게되어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일주일 정도면 전계군에 빠르게 전염되어 한계사에 확산된다고 전하고 있다(한농장이 피해보고 잇을만 하면 주변의 다른 농장이 피해 본다).

피해농장에서는 EDS, ND, AE 백신을 했는데도 이상한 산란저하 또는 이상란이 나타나, 모르는 새로운 질병의 감염이 아닌가 염려를 하고 있었다.

상인들로부터 판매하기 어려워 불만의 항의를 듣는가 하면 판매불능으로 인한 분쟁의 소리도 없지 않다고 전한다.

채란계농장 이외에 피해가 있었다는 경기도·충남지역의 종계장을 찾았으나 병아리분양에 영향이 있어서인지 기자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았다. 종계장의 피해도 산란계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금전적인 피해는 훨씬 산란계 경우보다 크다 하겠다. 한 원종계농장의 담당자말에 의하면 종계입식(P.S)이 활발한 시기임에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작년의 1/3 선 밖에 입식신청이 없다고 염려하고 있었다.

## IB는 무서운 질병은 아니다. 그러나 골치아픈 질병

미국에서도 IB질병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만병의 근원이며 접종방법이 까다로운 감보로질병을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2번째로 IB를 중요하게 본다한다.

기자가 만나본 일본의 양계연구소 관계자에 의하면 'IB는 무서운 질병은 아니다(무서워 할 필

요는 없다) 그러나 근절이 어려운 만큼 골치아픈 질병이다'라고 전하고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생독 2 회+ 사독 1 회의(ND 방역프로그램과 동일)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혼합백신 NB(ND+IB)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IB에 대한 당국의 홍보 중요해

근래 산란율이 떨어지고 호흡기증상과 이상란이면 전부 IB로 판단하고 있는 양축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중시해야할 필요가 있어 IB의 특성을 알아보면 △어린병아리에서 심한 폐사 △무산계 △기관지염 및 기관지세지염 △대추 및 산란계에서 CRD 또는 대장균의 발병자극 △산란율 감소 △회복후에도 균일하지 못한 산란율 동반 △난백의 이상(수양성 난백) △기형란(연각란, 난각이 우툴두툴한란, 대소형란, 주름진란, 가늘고 긴란, 꾸부러진란)을 낳는다. 이상과 같이 그 유형이 비슷한 질병과도 연관되어 혼동하기가 쉽다.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다. 치료를 할때는 이미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상한 질병증상이 있으면 가검물 혹은 혈청을 채취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계인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예방접종과 위생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질병피해를 극소화 해야할 것이다.

IB의 피해가 날로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 하루 빨리 수습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 닭들은 앞으로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시험소 등을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